



# 사천시보

<http://www.sacheon.go.kr>



FAX : 055)831-6011, E-Mail : shgongbo@korea.kr

발행인 사천시장 / 발행처 사천시 : 우)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 편집 기획감사담당관실 / 전화 055) 831-2215 / 1996년 1월 25일 창간



2012 사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입선작. 이육자 作 '꼬끼리 바위'

## ☞ 주요 지면안내

02~04

기획특집

04

전국 최초 꼭지판 대추토마토 상품화 성공

05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탄력'

사천시가 매월 발행하는 사천시보는 사천시 홈페이지 e-book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바다케이블카 조감도

### 민선 5기 3년 주요성과 및 과제

# 미래 행복도시 사천 위한 성과 가시화

민선 자치시대 출범이후 사천시는 중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변화와 개혁, 시민의 화합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왔으며,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라는 시정방침 아래 지역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이제는 그 결과가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사천시는 반세기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 대화합을 이끌어 내었으며 첨단 항공 우주과학관 건립,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등 사천시 발전사에 한 획을 그을 굵직한 현안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 지역현안사업 가시적 성과 표출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라는 시정방침 아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반세기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경남도의 모자이크 사업 전면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지원이 확정된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난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했던 삼천포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주민과의 갈등,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천시의 강한 의지와 상인 개별 면담을 통한 진심어린 설득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어, 지난 6월 준공됐다.

또한 국제선인 중국 관광객 전세기가 사천공항 개항 45년 만에 첫 취항하여 사천시가 글로벌 관광시대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중국의 청원시, 단둥시 등 유서 깊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미래산업 도시로 발돋움

항공우주산업도시이자 해양관광도시인 사천시는 도전적, 창의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KAI를 중심으로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과 복합재 부품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첨단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개관된 지상 3층 규모의 첨단항공우주과학관(연면적 1만6530㎡)은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임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인근의 항공박물관, KAI 에비에이션센터와 연계해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과학에 대한 무한한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사천의 랜드마크 자리매김 했다.

해양관광도시인 사천시는 삼천포항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여객선 전용 터미널을 7월 건립 예정이다. 여객선 터미널은 수도권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최적지인 삼천포항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2만 톤급 부두 준공과 삼천포 신항 배후 부지에 유치한 해양플랜트 제조업체가 본격 가동되면 내륙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과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는 항만, 공항, 도로 3박자가 갖춰진 성장 동력이 무한한 도시로 첨단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져 미래 산업을 주도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민화합 유도

사천시는 1413년 조선 태종 13년에 설

치한 사천현에서 '사천'이라는 지명을 최초로 사용, 올해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분리와 통합을 겪으면서 600년간 지켜온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시민 대화합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사천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념사업은 금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때 가진 미래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사천의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 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크게 3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와룡문화제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한 14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향을 노래한 옛 노래 40여 곡을 모아 음반을 제작, 발표했으며 하반기에는 '사천 정명 600주년 역사적 인물 세미나' 개최와 '이순신 바닷길 걷기 대회', '600년 변천사 사진전'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잇따라 연다.

기념일인 11월 17일에는 시민 대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고장 출신 재일동포 기업이 한창우 회장이 기부한 30억원으로 사천 시민대중을 건립하여 정명 600년사를 기념하고 사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며, 기념일에 맞추어 제막식과 타종식을 가질 계획이다.

### 의존재원 확보로 재정건정성 제고

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되는 열악한 자치단체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 건의하는 등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흥사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3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것으로, 지난 6월에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흥사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개발 관련 차량들의 주통행로로 이용될 지방도 1001호선과 1002호선으로 기업에게 저렴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인 사천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2013년도 4개 사업 151억원, 2014년도에 5개 사업 13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읍·면·동지역의 기초생활기반과 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도시 조성

사천시는 서민 생활 안정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 사천대교 인근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야기 할머니, 호랑이 할아버지 교실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전파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과 평생교육원 설치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런 기반으로 도내 장애인의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복지 보철사업, 만성질환자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삼천포수산물시장.



홍사일반산업단지 기공식.

**국가 항공산단 및 일반산단 조성**

우리지역을 항공 산업의 생산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항공 산업단지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실천계획으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사천시는 산업부와 국토부에 국가항공 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고 국가 산단조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부품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특화산업단지 354,000㎡ 규모의 종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사천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 통한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IMF이후 민간투자 실적 저조로 10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던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펜션 단지, 대규모 상업용지 분할 매각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노을을 보면서 바다를 따라 달리는 실안 레일바이크 사업, 사천바다케이블카, 삼천포 대교공원, 초양섬 거점마을 만들기 등 삼천포대교 주변 관광여건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 및 휴양 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시부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고 경기운영, 손님맞이, 먹거리, 볼거리 등에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뛰어난 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민체전 준비 과정에서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이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시작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시 예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빗 한 톨 내지 않고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을 공인 2종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각종 체육 시설도 신축 및 개보수하여 명실상부한 경제대전, 화합대전, 문화·관광제전을 이루어낸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이는 우리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로 구축된 체육시설은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각종 체육 대회를 유치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

사천시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여건은 물론, 국내 항공우주산업 요충지로서 기반이 잘 조성된 경쟁력 있는 도시이다.

시에서는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립한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항공우주 산업도시, 산·바다·산업이 어우러진 청정 전원도시, 사천바다케이블카, 실안과 비토관광지 조성을 통한 해양휴양 관광도시로 사천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 통합 이후 서부경남의 배후도시로 머물러 있던 사천을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고 2030년도에는 인구 25만 이상 되는 경남의 중심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대비한 청정사천을 만들기 위해 축동면에서 향촌동까지 상수도 관로를 활용한 20km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국도3호선에서 신도시간 도로 개설을 완료해 신청사를 이용하는 방문객과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켰으며,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천읍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와 해양낚시공원은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토끼와 거북이 전설이 살아있는 비토섬이 인기있는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부 3개 면을 연결하기 위한 중방대교(사천 제2대교) 가설과 곤양~곤명간 4차로 확장, 봉남동~고성 상리면간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관 건의와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활기찬 농·어촌 건설**

우리 농·어촌은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 경영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다. 정부에서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희망차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는 쌀, 채소, 과일 등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천연 농자재 제조 기술 도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대추토마토, 참다래, 풋마늘 등 농산물 명품화 추진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래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발돋움할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농산물 마케팅 등 다양한 과정의 농업대학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고, 한미 FTA 발효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작지만 강한 농업과 돈 버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전어 및 수산물 축제, 동서권역 바다 목장화 사업, 어항 개발, 낚시 체험 등 다양한 어촌 소득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정한 어항 만들기 사업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시정 방향과 과제**

사천시는 지난 민선 5기 3년 동안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를 위해 씬 없이 달려왔다. 특히 지난 1년은 민선5기 3년차로 2년 동안 밑그림 그렸던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었고 특히, 도민체육대회 개최, 삼천포 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가시화, 홍사산업단지 진입로 착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어 사천시가 서부경남의 중추도시 역할을 넘어서 전국에서 부러워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항공 산업단지와 종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 할 것이며 바다케이블카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의 거대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사천공항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고 청결해진 삼천포 수산물시장은 삼천포바다 속 용궁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변모시켜 주변 관광지와 연계, 국제적인 수산물시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사천시는 민선 시대 출범이후 많은 성과를 이뤄 내었듯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완수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꼭지 딴 대추토마토 전용선별기.

# 전국 최초로 꼭지 딴 대추토마토 상품화 성공

### 1억4,000만원 투입... 전용선별기 꼭지 제거부터 포장까지 가능 꼭지 없어도 맛·신선도 유지... 식품안전 율등해 농가소득 기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대추토마토를 고 품질 상품화하는 첨단 장비가 도입돼 농업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1시부터 곤명면 봉계리에 소재한 사천대추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선별장에서 꼭지 딴 대추토마토 전용선별기 시연회를 갖고, 전국 최초로 꼭지 딴 대추토마토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대추토마토의 맛과 신선도는 꼭지 유무와 상관없을 뿐더러 꼭지 딴 대추토마토의 경우 꼭지 주변에 기생하는 나쁜 미생물이 감소돼 식품 안전면에서 율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장 및 유통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유통 혁신이 기대되는 등 맛과 신선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편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꼭지 딴 대추토마토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0년에 경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 꼭지 딴 대추토마토 전용선별기를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전용선별기는 시간당 3톤 이상의 대추토마토를 꼭지제거에서부터 세척과 살균, 건조, 포장까지 한번에 가능해 대추토마토 생산이 가장 많은 4월에서 8월까지 가동될 경우, 전체 생산량의 70%인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추가 증설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추토마토를 전용선별기로 처리, 사천의 꼭지 딴 대추토마토를 명품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용현·상남권역 정비

### 권역별 8개 마을에 사업비 94억 투입

사천시는 용현면과 사남면 일원 8개 마을에 오는 2017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 되면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자립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용현권역(송지리·금분리·주문리) 일원과 상남권역(사남면 우천리·가천리·종천리·사촌리·계양리) 일원에 대해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권역별 비전을 보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무지개마을 만들기(용현권역)', '사천의 건강테라피 숲속마을 만들기(상남권역)' 이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용현권역은 빨간 토마토 판매장, 초록 도농교류센터, 파란 해안 산책로, 보랏빛 꽃길 조성 등 도농교류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남권역의 경우 그루터기 숲, 편백 건강관리실, 어울 놀이터 조성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이 외에도 다목적마을회관, 생태공원, 운동시설 등 문화·휴양시설과 경관개선은 물론이고 마을 도로와 빈집정비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마을의 면모가 일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3월 시민들이 참여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올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세부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 곤양면 상정비봉내마을 외국 관광객 유치 시동

### 농촌 관광 글로벌화 위한 'Rural-20 프로젝트' 선정

사천시 곤양면 상정비봉내마을이 농촌 관광 글로벌화를 위한 'Rural-2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외국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ural-20 프로젝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체험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해 대표 체험마을을 선정, 집중 홍보·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통역가능 인력 등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가능 마을, 한국적 전통 경관 또는 문화가 우수한 마을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검토와 현장평가를 통해 전국 25개 마을이 선정된 가운데 사천시는 지난 6월 8일 현장평가 심사를 받아 글로벌 농촌체험관광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향후 전문가와 상담해 곤양면 상



사천시 곤양면 상정비봉내마을 물놀이 체험프로그램.

정비봉내마을에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나무 체험장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사천 상정비봉내마을은 딸기, 토마토 시설 재배 30여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딸기체험과

대밭 산책 프로그램이 특히 외국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정 비봉내 마을이 글로벌 체험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전략적 마케팅을 펼쳐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 홍보는 물론, 농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시설 금연 구역 흡연행위 이달 단속

사천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면 시행된 공공기관,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 시설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 지역은 음식점, 호프집, 휴게음식점(제과점, 커피숍) 등 연면적 150㎡이상인 업소 밀집지역으로, 시설의 관리자·소유자와 점유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고, 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7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글로벌 관광 상품 개발 '탄력'

## 중국 단둥시 대표단 사천시 방문... 중국 관광객 유치 '청신호'

단둥시 여유국장(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한 단둥시 대표단이 지난달 12일 사천시를 찾았다. 단둥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사천시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현지를 사전 답사하고, 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사천시측과 다양한 의견을 협의하고자 단둥시측에서 올 초 사천시에 방문을 제안해 이뤄졌다.

단둥시측은 최근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가 본격화되고 사천공항 국제선 전세기 취항과 관련해 사천시를 거점으로 제주와 서울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사전답사에 착수했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의 최대 물류 및 거대 산업도시인 단둥시가 사천시를 교두보로 문화관광 교류에 직접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사천시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단둥시 대표단이 계획 중인 관광 상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항에 도착해 KTX를 타고 진주역에 도착, 사천시에서 1박하고, 이튿날 사천시 유명관광지를 둘러본 후, 제주월드카페리호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 제주관광을 즐긴다. 이어 마지막 날 서울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코스이다.

대표단이 구상 중인 관광 상품이 현실화되면 사천시에서는 사천공항과 제주도행 카페리운항 및 사천바다케이블카를 기본 축으로 한 본격적인 글로벌 관광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단둥시 대표단은 사천시삼천포유람선협



서기용 부시장(앞줄, 우측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사천시와 사천시삼천포유람선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삼천포해상관광호텔 환영만찬회 행사장에서 중국단둥시 여유국장(사진 앞줄, 우측에서 일곱 번째)을 단장으로 한 중국단둥시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 주관의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사천시 유명관광지 답사에 이어 제주월드카페리호를 타고 제주도를 방문한 후 다시 사천시로 돌아와 서울 견학길에 올랐다.

사천시 서기용 부시장은 "중국의 유서

깊은 거대도시 단둥시와 우리시가 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단둥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정책에 우리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 사천시-중국 청윈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사천시와 중국 청윈시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시는 지난 6월 4일 오후 3시부터 사천시청 3층 중 회의실에서 서기용 부시장, 중국 광둥성 청윈시 왕득곤 부시장 등 사천시와 중국 청윈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청윈시와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사천시와 중국 청윈시의 우호 교류는 사천공항 중국 전세기 취항에 따라 중국 정부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사천시와 중국 청윈시는 의향서를 교환하며, 무역, 과학기술,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

와 협력을 추진해 양 도시의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민간차원의 상호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정만규 시장은 이날 "사천시와 중국 청윈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며 "양 도시의 인연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416만 명의 청윈시는 광둥성 중북부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규모 165km에 이르는 광활한 청윈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가동하고 있다.



내달 준공 예정인 서포면 신청사 전경.

## 서포면 신청사 건립에 출향인사 기부 '훈훈'

내달 중순경 준공... 쉼터·표지석·토끼상 등 기부금으로 조성

서포면 신청사가 이달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출향인사들의 훈훈한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서포면 자구로 일원 3,333㎡에 내달 중순 경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별주부전 테마파크와 비토 별학도 해양낙시공원 등으로 사천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서포면은 신청사 건물을 '해양관광도시, 서포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상징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물 형태를 비토별주부전의 상징인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건립한 것을 비롯해, 청사 조경공간에 쉼터와 청사 표지석 및 토끼조각상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청사 개청 소식을 접한 출향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져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석근(창원 거주)씨가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류재경(부산 거주)씨는 청사 표지

석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초대 총재를 역임한 문상봉(전남 여수 거주)씨는 비토 별주부전 테마파크의 토끼상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문상봉씨는 "옛 것이 생각나고, 옛 친구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나이에 고향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포면 김연옥 면장은 "고향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출향인사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포면 발전을 위해 향후 출향 인사들과 면민들이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포면에서는 고향에 대한 뜻 깊은 정성을 나눈 출향인사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면 청사 개청식에 초청, 면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 사천아카데미 제75강좌

## 『소통과 주민화합으로 행복한 동네만들기』

7월 18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

사천시는 7월 18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김정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를 초청해 『소통과 주민화합으로 행복한 동네만들기』라는 주제로 사천아카데미 제75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함께 웃는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학력 및 주요경력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국제로타리클럽 총재 비서



김정희 교수

- ▷(사)한국로타리 총재단 로타리코리아 편집실장
- ▷한국인사관리협회 비서교실 전임강사
- ▷배화여자전문대학 경영학과 강사

▷현)한국산업개발훈련원 전임교수/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 출강경력

- ▷삼성, LG, 현대, POSCO, SK, 롯데, 금호, 한진, 동양그룹계열사 직원 및 비서교육
-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공무원 및 시민교육 등 출강 30여년



# 동서양 아우르는 국제 타악의 향연 열린다

사천세계타악축제 8월8일~11일 삼천포대교공원... 11개국 19개 팀 참가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도 열려...얼음조각 퍼포먼스·노을걷기 대회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한복판에 심장을 울리는 타악 연주가 펼쳐진다. 사천시가 주최하고 (재)사천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3 사천 세계 타악 축제'가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분야별 메인행사와 연계행사, 부대행사 등 총 3개 부문 24개 종목으로 나뉘어 성대하게 열린다.

'리듬을 넘어서'라는 슬로건 아래 동서양을 아우르는 국제 타악의 향연이 될 '세계 타악 축제' 행사의 으뜸은 단연, 세계 11개국 정상급 타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타악 한마당' 행사일 터.

해외 10개 팀(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아프리카, 몽골,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과 국내 정상급 9개 팀이 무대에 올라 전통 타악에서부터 퓨전 타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감동을 선사할 타악 한마당은 삼천포대교 야경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할 것이다.

또한 세계 유명 타악 팀을 초청해 공연 및 타악 스쿨을 진행하는 '세계 타악 워크샵'을 비롯해 타악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통 타악기 제작 및 체험', 세계 타악기 1,00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 타악기 전시', 6개국 8개 민속놀이를 만날 수 있는 '세계 민속놀이 체험'과 '전국 타악 경연 대회'도 신명나는 축제

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 기념행사로 처음 선보이는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얼음조각 퍼포먼스와 크리스마스 모형전시 및 장식품 만들기 체험, 타악과 산타 퍼레이드, 전국 노을걷기대회와 어린이 놀이마당(4D 영상관·미니기차·워터풀장 등) 등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 및 체험 행사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삼천포대교 교각 및 주차장과 삼천포대교 공원 일원에는 세계 풍물관, 기념품·특산물 판매코너, 스넥 코너 등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한편 사천시와 (재)사천문화재단에서는 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제 기간 인근 음식점과 관광 업소 등과 연계해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등 축제와 연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타악 매니아를 넘어 아동·청소년층까지 관객을 확대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축제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사천세계타악 축제의 메인행사인 '세계 타악 한마당' 공연 장면.

□ 행사종목 및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개막식 및 개막공연	8월8일 18:30~20:30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 개막식, 불꽃놀이, 타악퍼포먼스
세계타악한마당	8월8일~8월 11일 20:00~23:00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 세계 11개국 19개 공연팀 타악 퍼포먼스
전국타악경연대회	8월10일~8월 11일 10:00~18:00	사천시문화 예술회관	- 전국 타악 뮤지션 및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전통·창작분야 단체 및 개인별 타악경연
세계타악 워크샵	8월8일~8월 11일 15:00~16:00 16:00~17:00 17:00~18:00	삼천포대교공원 체험마당	- 세계 유명 타악팀 초청, 관람객 대상으로 공연 및 타악스쿨
세계타악기전시·체험	8월8일~8월 11일 11:00~22:00	삼천포대교공원 체험마당	- 1,000여점의 세계타악기 전시 - 세계 타악기 연주 체험
전통 타악기 제작 및 체험	8월8일~8월 11일 11:00~22:00	삼천포대교공원 체험마당	-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제작 체험
세계민속놀이 체험	8월8일~8월 11일 11:00~22:00	삼천포대교공원 체험마당	- 세계 6개국 8개 민속놀이 체험

## 사천 여름밤은 축제와 낭만으로 넘실~

'바다영화제·삼천포아가씨·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한마당 펼쳐져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찮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이 지난달 본격 개장됨에 따라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특히 시는 남일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용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해수욕장 상가변영회와 연계해 다양한 축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피서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바다축제는 테마별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열린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바다영화제(7월19일~20일)'가 오후 8시부터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1일 2편씩 총 4편의 영화를 상영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것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삼천포아가씨 가요제(7월26일)'는 전국 신인가수들의

등용문으로 인식되면서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가요제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하고, 노래경연 후에는 박상철, 은방울자매 등 유명가수를 초청해 축하공연도 열린다.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썸머 페스티벌(7월27일)'에는 가수 김범룡을 비롯해 7080세대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한려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부경남의 빼어난 해수욕장으로 지난해에는 10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곳 백사장은 예부터 인근의 부녀자들이 모래찜질을 하던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시 관계자는 "사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남일대 해수욕장은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체험장,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예년에 비해 개장일



남일대 해수욕장 전경.

을 열흘 정도 앞당긴 만큼 안전과 청결에 더욱 만전을 기해 사천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달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통영해경과 사천소방서 등과 연계해 종합 봉사실을 운영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신

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백사장 재정비와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했다.

또한 피서철만 되면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남일대해수욕장 상가변영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부당요금 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삼천포 수산시장’ 명품으로 거듭



현대화 시설로 세단장된 삼천포수산시장 전경.

사천시가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개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삼천포 수산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열리는 개장식에는 정만규 시장과 시장상인, 수산업 관계자,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와 경과보고, 식후공연과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사천시는 총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구항만 물량장(동동 485-2번지 일원)의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공사에 착공했다.

## 개장식 6월 29일 열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현대식으로 편의 도모 내달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본격 추진...콘텐츠 개발에 심혈

부지면적 7,333㎡에 건축면적 4,282㎡의 구조형 상가형태로 1층에는 268개의 상인매장과 어민창고, 2층에는 상인교육관과 사무실, 어민대기실, 선어 건조장,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싱싱한 수산물이 활발하게 거래될 예정이다.

특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돼 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장과 함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센터 앞 도로변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삼천포 수산시장은 지난 3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는 결정사를 맞아 내달부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로의 활로를 찾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말 장터를 운영해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향후 삼천포 유람선과 바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향후에는 문화 관광형 시장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이라며 “재래시장 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발행해 매출을 증가시키고 쇼핑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천 흥사일반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첫 삽’

국비 300억원 투입 도로 확·포장, 교량 재가설... 2015년 4월 완공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쓰일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곤양면 흥사리 도로 확포장 및 교량 가설 공사가 지난달 13일 첫 삽을 떴다.

이번 사업은 축동면 가산리~곤양면 흥사리(5.15km) 구간 지방도 확포장과 제2가산교(320m)를 가설하는 공사로, 국비 300억원으로 시행된다.

오는 2015년 4월 완공 예정인 이번 공사는 기존의 협소한 도로(6m)를 13m로 넓히고 곡선 구간도 직선화하게 된다. 이번 공사에는 임광토건(주)등 2개 건설사가 시공을, 도화엔지니어링(주)이 감리를 각각 맡았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방도 중 산업 개발지역인 흥사지역으로 통하는 지방도 1001과 1002호선으로, 관련 차량들의 주동행로로 이용될 곳이다. 또 남해고속도로 축동 인터체인지와 연결돼 교통량의 증가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기업에게 저렴한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쓰일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곤양면 흥사리 도로 확포장 및 교량 가설공사 기공식이 지난달 13일 열렸다.

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기업과 첨단항공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로 활용돼 기업하기 좋은 사천을 만드는 지름길이자 기본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채무액 감축 ‘재정 건정성’ 강화

사천시는 민선5기 출범이후 채무 줄이기에 적극 나선 결과, 최근 3년 동안 채무액을 124억원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주변 지자체들이 무리한 건축·토목공사와 전시장 사업으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채무액 366억원 가운데 34%인 124억원을 상환했으며, 내년에는 84억원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으로 부채가 366억원에서 158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적정 지방채 한도액 관리로 긴급 수요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고 긴급 재해 대책 수요를 제외한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향촌 삼재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7억원을 조기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였다.



# 제171회 사천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 사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결

사천시의의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사천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여명순 의원의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3건의 승인안, 정례회 기간중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회기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과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 및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

간보고를 청취하였다.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 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정보·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환경·민원처리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처리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서가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교육과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개선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을 요구하였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승인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2건을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 171회 정례회 시정 질문 및 답변 요지



한대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현재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과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 왜 매일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만차가 되는지 그 원인과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동호인에 대한 사용 또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출근 차량으로 혼잡한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입구에서 한국항공(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지하 차도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뿌리산단 조성 관련 환경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진주 뿌리산단 계획의 인가승인 저지 방안과 단계별 대응 전략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천읍 향교 뒷산과 뜰복산 관리 일원화 및 사천향교 뒷산 체육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부지를 삼천포 종합운동장과는 달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용도별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운동장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인공암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운동장 입구 도로변 상가 형성된 지역의 묵혀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풍물 학습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여론을 감안하여 2014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우리시에서는 출산 및 전입세대 우대 인증 발급, 셋째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또 신규 산업단지나 공단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유입 정책을 펼쳐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주차장은 홍보 현수막 등으로 장기주차를 금지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부지를 추가 확보, 주차장을

확장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 사천·삼천포 보조축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병행하여 주 3회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면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KAI 2공장 간 지하차도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사천성 앞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진주 뿌리산단 계획의 승인 저지를 위해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승인권자와 관련기관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버스를 활용한 우리시 관광홍보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홍보 가능한 버스 대수는 약 150여대로 차량별로 약 300,000원이 소요되어 전체 사진 부착비로만 4천 5백만 원이 소요되고, 대당 광고료가 연간 3백만 원으로서 1년간의 광고료만 총 4억 5천만 원이 되어 전체 사업비는 4억 9천 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매년 4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뒷산 및 뜰복산에 대한 체육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리예산의 일원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 등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 하게 등산로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해 산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지정 할 시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향후 등산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전반에 대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에 대한 연차적 취득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전체 매입 대상 부지 대비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주민 여론 수렴 후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내 인공암장 설치에 대해서는 인공암장 1개소 조성비용이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또 인공암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내 풍물학습센터는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조 받는 단체장이나 축제 집행위원장 위촉시 공인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공인이 타악축제 위원장이나 박재삼 문학관 운영위원장이 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과 보조금 정산심의 위원을 두어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박재삼 문학제와 관련하여 발견된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 박재삼 문학상 경비 통장을 개인 통장으로 집행한 문제. -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인데 연임에 모두 동의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문제. - 출판사 선정과정 및 출판료 지급 문제, 심사료 지급 기준 없이 심사료를 책정한 것이 합당한지 운영위원장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본인의 사천문학상심사료 본심 60만원, 사무국장 예심 심사료 30만원

이 학생백일장 심사료 예심 5만원(정삼조 시인)과 비교하여 합당한지?

- 박재삼 학생 시 백일장 대회의 심사 근거자료가 없는 문제, - 상급보다 심사비가 더 많은 문제. - 기부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되지 않음 - 박재삼 문학제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외출장없이 근무지 무단이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공인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봐 두 가지 업무를 보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 바람. 9면서 계속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 ☞ 8면서 계속

- 4월 2일 서울 출장비 각168,000원(3명)으로 초과여비 환수 및 출장관련 증빙 서류가 없음 - 학생 시 백일장 참가학생 보고서에는 400명이나 실재는 330명임 - 2011년 기금 수입 지출내역이 실제와 다름 - 행정사무감사 서류상 차액 부분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박재삼 문학제가 끝난 후 작품 보관이 부실한 점, 참가 학생 전원의 작품철 확인  
끝으로 입체검사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은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었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삼 문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통장은 단체명의로 개설해야 하나 단체가 세무서에 등록을 하지 않

아 개인명의의 통장에 단체명을 부기한 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료는 특별히 지급규정이 없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료를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학상 운영위원 다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문인이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관(규칙)을 개정토록 유도하여 위원의 임기·임무 등 역할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가능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판작은 연도별로 구분·편집

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향후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표, 채점표, 집계표 등이 결여된 백일장 대회 등 미비점은 객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박재삼문학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불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악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천문화재단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예정된 우리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하부정류장에 위치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26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매입하지 않아 부지매입비 상승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했는데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삼천포항 여객터미널이 여객항

으로서 면모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흥준표 도지사께서 삼천포항과 일본을 뱃길로 잇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국내와 국제선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대응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개인적인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 시민대중’이 한 사람의 출자금으로 건립되면서 시민대중으로 명하기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양시에서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이 우리 사천시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시행해야 마땅한 제도라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부정류장에 위치한 건축물 매입은 사전 절차 이행후

현재 보상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 쟁점 사항이나 중요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전문가단,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심도 있게 검토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 부지매입비 예산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환경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으로 부지매입은 절차상 하자라 만에 하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환경이나 교통 문제 등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는 관광홍보 및 셔틀버스 운행 지원, 터미널과 근접한 곳에 시내버스가 경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천포항 ~ 일본간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것은 현재 경남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취항선사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건립은 선사 측에서 우선 임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복합여객터미널 건립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수근 의원**  
총무위원회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변경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은 자동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와 유치 방안,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요?

하봉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관광지 조성계획 구역 내로 편입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토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일부를 수정, 하봉지역을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또, 비토초등학교의 장단기적 활용계획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정 공단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실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광포만 공단지 조성은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연안매립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방법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공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승인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 비토관광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 미 협의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비토분교(폐교)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본 사업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어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은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날인 2013년 6월 3일자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규정에 의거 1년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어 우리시에서는 2014년 6

월 2일까지 착수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토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능력 있는 개발사업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조성 관련 하봉지구 국유지 편입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 불투명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당장은 하봉지구를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봉지구 국유지를 포함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토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정 산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면서 계속



9면서 계속

우정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월 31일 마쳤습니다. 2013년 하반기

경상남도에서 승인 신청 계획으로 우정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포만 공단조성과 관련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포만 공단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기본계획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 중앙안전관리심의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이 추진 중단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오랜 숙원인 삼천포대교공원내 공간을 활용하여 아트센터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 순환 근무 배치 기준과 순환배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먼저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증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36%로 매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30년 이상 근무한 여성공무원은

행정직이 전체 7명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우리시의 인사체계가 가장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은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등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 바다영화제를 영화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시민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영화 상영업체와의 역할분담 등 원만한 조정을 통해 그동안 바다영화제를 기획 추진해 왔던 지역단체에서 계속 주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아트센터 설립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순환배치는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시행하여 원활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유가 타당하면 순환배치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환경미화 종사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이 낮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13년 바다영화제를 해마다 해오던 문화단체가 아닌 일개 영화사가 주관하게 된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시유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삼제농공단지과 관련하여 향촌농공단지 추진이 줄속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 그리고 책임소재와 문책범위에 대해 답변 바라며,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삼제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단분양물 제조로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남 엘크루아파트 입주로 기존 푸르지오, 진사주공아파트 부근에 교통 체증이 심한바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답변

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먼저 별밭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였고, 2010년 2월경 어린이집 현지 확인 시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교체와 관련하여 올해 3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3대 정도의 청소차량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공우주테마공원은 내년에 공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조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또는 교양시설 등을 구상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우선 급한 보안등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향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총액은 145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2009년도 분은 올해부터 원금기준으로 9억 원씩 상환하여 2017년에 상환 완료되며, 2010년도 분은 내년부터 원금기준으로 5개년 동안 15억 원씩 상환하여 2018년도에 완료됩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등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 사업에 비하여 많은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는 최근 국제적인 원자재가 상승과 케이블카 역사 주변 정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에 투융자 변경심사를 의뢰하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수와는 달리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최장의 케이블카로서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당초 탑승객 추정 시 우리시 방문객 중 여수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방문객은 제외하여 산출하였기에 탑승객 감소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매립목적 변경과 금지사항등기 말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무상양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상 토지와 교환 가능한 시유지를 찾기 어려우며, 매입 할 시에는 오히려 부지매입 가격이 인근 임야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축물 신축 시는 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지질조사 및 기초보강 공사와 막대한 조경공사비가 소요되어 비용절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삼제농공단지과 관련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건설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공단 진입로 개설부분으로 향후 공단조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촌삼제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90억 중 금년도 상환해야 할 25억원 은 기 상환하였고, 7월중 12억원을 조기상환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상환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자료수집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급식을 위해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 급식조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남면 엘크루 아파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엘크루 아파트 동측도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엘크루 아파트와 조동마을 사이 도로는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로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므로 승인기관인 경상남도 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도시



정영희  
명예시민기자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와 함께 벌써부터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각종 세균의 번식이 활발해져 그로인해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여름엔 무엇보다 강조 되는 것이 청결이다.

특히 산업이 발달하면 하는 만큼 산출되는 쓰레기가 큰 문제다. 쓰레기의 양은 날로 증가 되는데 그 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아 많은 자원이 헛되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종이를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도 너무 헤프게 사용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렇게 버린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소각되어지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의 7~80%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버려지고 있으며 1년에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양이라 한다.

지구 어느 한편에선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기아가 있는데도 음식물 쓰레기 또한 넘쳐나고 있으니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자체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를 지나다보면 공동집결지에는 규격봉투도 아닌 봉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벌금이니, 수거해 가지 않겠다니 하는 임포의 게시물마저도 미관상 흉물스럽기 그지없다.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산뜻한 색깔의 가리개를 설치하고 좋은 문구라도 새겨 넣으면 조금의 자각심이라도 심어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따른다.

브라질의 한 도시인 '꾸리찌바' 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라 한다.

교통, 녹지, 문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쓰레기 문제 또한 좋은 본보기다. 철저한 분리수거로 저소득층 지역민들에게는 폐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그 지역 소농민의 잉여 농산물을 사들여 그 댓가로 나눠줌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소농민의 생활고에 도움을 주고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학교건물을 짓거나 교재를 만드는데 쓰여 진다고 한다.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인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란 꼭 크고 화려하고 풍족한 곳만은 아닐 것이다. 오랜 전통이 소중히 보존되고 오염되지 않는 좋은 먹거리가 있고 아름답고 청결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꿈꾸는 곳이지 싶다.

그런 도시를 우리 사천시 또한 도모하고 있지 아니할 런지.

# 살인진드기,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



강다인  
명예시민기자

최근에 들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살인진드기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살인진드기에 물리면 죽는다더라, 절대 풀밭에 가면 안 된다, 누가 살인진드기에 감염되었다

더라 등 무수한 소문이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7월 호에는 사천시민들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시대의 최대의 적인 살인진드기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먼저 살인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는 Bunyaviridae과 Phlebovirus 속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으로서는 매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전해지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의한 감염도 보고되고 있다. 증상으로는 발열, 식욕 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약 1~2주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 회복이 되나 심할 경우 12~30%에서 중증화 되어 사망한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인근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방법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이 있으며 다른 감염에 의한 것임을 배제한 상태에서 원인 불명의 발열,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AST/ALT의 상승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으며, 환자의 혈액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동정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할 수 있다. 치료방법으로는 아직 확실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예방법이다.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5~8월에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풀숲에 들어갈 때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야외에서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무나 풀밭에서 작업할 때는 진드기가 옷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토시와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풀밭에 머무를 경우에는 풀밭 위에 직접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돛자리에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해 줘야 한다. 또한, 작업이나 야외활동이 끝난 후에는 즉시 입었던 옷을 끈 뒤 세탁하고, 목욕을 해서 혹시 옷이나 몸에 붙어있을 수 있는 진드기를 없애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해충기피제를 바지 끝, 소매 끝, 허리띠 부분에 뿌려주는 것도 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사천시 SNS 공식페이지를 알리고자



조문정  
명예시민기자

도민체전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 두어 달이 지났다. 올봄 유난히도 우리시에는 즐거운 일이 가득한 느낌이다. 그만큼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행사들이나 의정 관련 내용들이 과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2,30대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지인들과의 대화도중 도민체전에 관한 소식이나 시민의 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었다. 절반은 알고는 있는데 참여는 못한다와 그 반의 반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이 20대의 모든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돌아온 대답들은 사실이고 나로서는 충격적이

었다. 몇날며칠을 준비하고 시 전체에 홍보되어 온 축제나 행사에 관한 사실조차 모른다는 건 꽤 놀라웠기 때문에... 왜 관심이 없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원인을 추측해본 결과 어쩌면 우리 2,30대들에게는 각종 행사나 의정 관련 내용들의 정보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 우리 세대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몰라서 모르는 것과 알지만 모르는 체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사소한 것에 괜히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 일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지역 행사 참여와 관심이야말로 곧 우리 사천시의 발전가능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안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2~30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천시 SNS(Social Network System)'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10대를 비롯해 2,30대들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검색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검색기능과 채팅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NS는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접근하기 쉽고 빠른 피드백들이 오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 우리시에서는 트위터(<https://twitter.com/risingsacheon>),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ingsacheon](http://www.facebook.com/risingsacheon))에 계정을 개설 하였고 지금현재도 많은 팔로우 및 친구수를 늘려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전보다 실시간으로 시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때그때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SNS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일부만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유지관리와 시민들 간의 소통이 지난 해 개설된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에 반해 우리시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무분별한 앱 개발의 실패사례'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사용자의 낮은 이용률과 다운로드 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작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앱 개발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앱 자

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의 존재감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용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나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만들어진 매뉴얼 그대로의 변화 없는 앱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정보성마저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차후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게 될 시기가 온다면 앞서 언급한 실패사례를 답습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사천시의 SNS를 기반으로 탄탄히 다진 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앱의 기능들은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한 뒤에 개발되길 바란다. 물론 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꾸준한 업데이트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시의 SNS를 충분히 잘 활용 및 홍보하여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와 전 세대의 시민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시가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SNS 활용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천읍 희망나눔회 조손가정 집수리 봉사**

사천읍 희망나눔회(회장 정이근)에서는 지난달 30일 정춘석씨 댁(사천읍 무산로 거주)을 찾아 집수리봉사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이날 어려운 조손가정에 집수리와 집안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며, 향후 매월 1회씩 관내 사회봉사 단체들과 연계해 저소득 가



구에 대한 후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동면 구백배구동호회 사천시장기배구 우승**

정동면(면장 강창수)의 구백배구동호회가(회장 김창익)가 지난 6월 16일 사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사천시장기 남녀배구대회 남자부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구백배구동호회는 지난달 통영에서 열린 제7회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남자부에서 8강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정동면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가꾸기 행사 열려**

사천읍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박갑용)는 지난달 19일 사천읍 수양공원에서 환경가꾸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회원과 공무원 등 40여명은 장마철을 대비한 안

전지도 및 생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취약지역을 정비했다.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했다.

**정동면기관장협의회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정동면기관장협의회(회장 강창수)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지난달 29일 최세현씨(52세·대곡리) 과수원에서 단감 열매 솟기 작업을 도왔다.

이날 사천여중 최낙두 학교장은 "오늘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 단감재배 기술을 몸소 익히고, 농가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동면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본격적인



단감 수확철인 11월에도 많은 일손이 필요한 만큼, 관내 기업체와 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남면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사남면은 지난 6월 5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전리 류기현 농가에 사남면 사무소 직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인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고구마순 심기 일손 돕기(0.5ha)를 실시했다.



사남면 관계자는 "이번 대민지원은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 영농이 가능하도록 관내 기관·단체의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인력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현면 용현농협 감자수확으로 새 소득 창출**

용현농협(조합장 신재균)은 지난 6월 11일 장송 마을에서 시 관계자와 이장협의회, 남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농가주부모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현의 새로운 소득 작물인 감자를 첫 수확하는 기쁨을 맛있다.

용현농협에서는 지난 1월 감자종서(20kg/650상자)를 구입해 감자 싹 틔우기에 서부터 정식 작업, 퇴비 살포 등 공동 작업 지도가 있었다. 총 30여 가구가 속해 있는 용현면 감자 작목반(반장 박학진)은



86,000㎡으로, 약1억1천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감자재배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축동면 축동면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실시**

축동면 생활개선회(회장 송춘자) 회원 17명은 지난 6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을 통해 회원들은 세종시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용현면 전화번호부 책자 전달행사**

용현면 이장협의회(회장 박고성)는 8,500여 면민의 전화번호부를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한 끝에 '2013년 용현면 전화번호 책자'를 제작 배부했다.

이번 전화번호 책자에는 마을 주민과 업체의 전화번호는 물론 용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곤명면 곤명면 추동마을 경로당 준공식 개최**

곤명면 추동마을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5월 29일 오전 내빈들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준공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추동 경로당 건립은 경로당 건립 추진위원회(회장 이춘구 이장)를 주축으로 지난 4개월간 주민들의 협조로 진행됐다.

**곤양면 곤양면 기관·단체회원 선진지 견학**

곤양면(면장 백동욱)은 지난달 21일 관내 기관·단체회원 간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충남 서천 일원을 다녀오는 선진지 견학을 했다 기관·단체회원 180여명이 참여한 이날 견학은 지역 자원봉사에 앞장서 온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번기 피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백동욱 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기

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랑의 감자 수확 및 전달식**

곤명면사무소에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면사무소 앞 텃밭에서 직원들이 손수 키운 감자를 수확해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

이날 수확한 감자(15kg) 100상자는 면관내 어려운 세대 100가구에 전달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서포면 중풍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중풍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오는 7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포경로당(회장 김재관)에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잦아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함이다.

한편 서포면은 지난달 서포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실시



하는 등 향후 면민의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 동서동 문화화가정 위한 선진지 견학

사천시 동서동주민센터(동장 노영주)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흥찬) 회원 50여 명은 지난 6월 5일 창원해양공원과 고성 일원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먼 나라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함께 선진지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사회를 가깝게 여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창원해양공원과 고성공룡역



스포 현장을 둘러봄으로서 새로운 활력소와 충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선구동 청사 건립 추진위 창립총회 개최

선구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곽병환) 창립총회가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선구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원선출 및 청사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관내 조직단체 회원 및 임원 등 총 7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곽병환 전 체육회장이 선출됐으며, 12개 관내 조직단체장을 부위원장으로, 천용욱 전 시의장과 안규탁 전 총무국장, 김경호 전 동장이 고문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날 추진위원들은 신축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후보지 선정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향후 현장 확인을 통한 검증을 거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기로 했다.

### 벌용동 자원봉사회, 독거노인 호도관광

벌용동자원봉사회(회장 박영숙)는 지난 6월 5일 독거노인 20명을 모시고 함양으로 호도관광을 다녀왔다.

이날 15명의 자원봉사회원들은 평소 관광의 기회가 적은 노인들과 함양 상림공원과 서암정사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호도관광을 실시했다.

박영숙 자원봉사회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현충일 맞이 국기달기 캠페인 전개

선구동통장협의회(회장 탁갑웅)와 시민안전봉사대(대장 이순길)에서는 제5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지난달 5일 오후 4시부터 선구동 중앙로 일대에서 국기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동민들에게 조기 게양법을 홍보하는 등 국기 달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기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남양동 새마을지도자 자녀돕기 일일찾집 열어

남양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수생) 회원 이 모(56세)씨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이씨를 위해 임내마을 주민들이 지난 5월 성금운동을 펼쳐 1,000만원

을 모금한데 이어, 남양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일일 찾집을 열어 모금운동을 적극 벌였다.

또 회원들은 남양동 주민센터와 농협, 롯데마트, 농협마트 등 4개소에 모금창구를 개설해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 남양동 주민센터 새 청사로 이전

남양동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양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오후 3시 개청식을 열었다.

임내안길 65에 위치한 신청사는 1층은 사무 공간, 2층과 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회의실이 마련되어 주민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청식에는 남양 농악 풍물놀이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청식, 테이프 커팅, 표지석 제막, 기념식수 행사로 진행됐다.

### 벌용동주민자치위, 궁도교실 운영

벌용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성주)에서는 7월부터 대덕정에서 궁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두공원 입구에 위치한 대덕정은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8억여 원을 투입해 건립된 것으로, 궁도교실은 대덕정 운영 활성화 및 국궁 저변 확

대를 위해 개강했다.

박성주 위원장은 “수강생 모집을 통해 2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촌동 새마을남여지도자協, 가을콩 파종

향촌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지도자 회장 박수갑, 부녀회 회장 김돌선) 회원 40여 명은 지난달 21일 삼재농공단지 내 미분양 토지(규모 3,300㎡)에 가을콩(20kg)과 검정콩(10kg)을 파종했다.

새마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가을콩 파종은 회원 간 화합을 도모

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수익금 일부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향촌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 수익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수익금의 일부를 관내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서금동 사천시 주민자치 위원協 정기회 개최

사천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이창조)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부터 동서금동 주민센터에서 사천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사천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어축제 행사의 주민자치 발표회와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8월 월례회는 동서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창조 회장은 “매월 정례회를 개최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제8회 사천노을 마라톤대회 개최

### ■ 행사 개요

- 일 시 : 8월 24일 오후 4시 30분
- 장 소 : 사천 초전공원 일원
- 종 목 : 4개 종목(풀코스, 하프, 10km, 5km)
- 참 가 비 : 풀코스·하프(3만원), 10km(2만5천원)  
5km(1만5천원/18세 이하 학생은 1만원)
- 코 스 : 초전공원 →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 사천만 해안도로  
→ 선진리성 → 사천대교 → 해안도로 → 모자랑포  
→ 해안도로 → 선진리성 → 초전공원
- 접 수 처 : (주)경남일보 사업팀(☎055-751-1085~7)
- 접수방법 : 인터넷(www.sunset.or.kr/), 팩스(757-0035)접수
- 접수기간 : 7월 17일까지
- 주최/주관 : 사천시/(주)경남일보

### ■ 부대 행사

- 무료시식 코너 운영 : 전어구이, 수박화채, 국수, 두부김치 등
- 참가자 노래자랑 및 기념품 제공 : 지역 특산품 등

## 제1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 행사기간 : 2013. 7. 31(수) ~ 8. 4(일), 5일간

■ 장 소 : 사천시 서금동 팔포매립지 일원

■ 주 최 : 사천시 동서금동 발전협의회

■ 주 관 : 사천시 삼천포항 전어축제 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풍어제 및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놀이
- 맨손전어잡기, 천연향수·모기퇴치제 만들기, 대나무물총 만들기 등 무료체험
- 전어골든벨, 전어요리 빨리먹기 대회, 전어무게 맞추기
- 어르신 옷놀이, 보물찾기, 건어·특산품반액 경매
- 주민자치 발표회, 전어축제노래자랑
- 전어먹거리 장터 운영 등

##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생모집

### ■ 신규 개강강좌

모집강좌	모집인원	개강일	요일	시간	수강료
통기타	20명	7.1	월	18:30-20:30	60,000원(12주)
리본공예	20명	7.1	월	10:00-12:00	60,000원(12주)
예쁜글씨(아간반)	20명	7.4	목	18:30-20:30	60,000원(12주)
구연동화	20명	7.2	화	10:00-12:00	60,000원(12주)
한방약초(아간반)	20명	7.5	금	19:00-21:00	60,000원(12주)
일어(기초반)	20명	7.2	화, 목	19:00-21:00	120,000원(12주)
영어(기초반)	20명	7.1	월, 수	18:30-20:30	120,000원(12주)

### ■ 수강중인 강좌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강좌	모집인원	요일	시간	수강료
연필초상화	20명	월	10:00-12:00	80,000원(12주)
문인화	20명	화	18:30-20:30	60,000원(12주)
한방약초(주간반)	20명	수	10:00-12:00	60,000원(12주)
서예	20명	수	18:30-20:30	60,000원(12주)
예쁜글씨(수요반)	20명	수	10:00-12:00	60,000원(12주)
예쁜글씨(목요반)	20명	목	10:00-12:00	60,000원(12주)
요가(오전반)	25명	월, 화, 목, 금	10:00-11:00	45,000원(4주)
요가(오후반)	25명	월, 화, 목, 금	18:30-19:30	45,000원(4주)
노래	120명	금	14:00-15:30	30,000원(12주)
폼아트	20명	금	10:00-12:00	60,000원(12주)

■ 문 의 :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854-7771)

## 어업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어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산업은 WTO/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당면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수산업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수산업의 근간인 자원 회복 없이는 어떠한 수산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원회복을 수산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어초, 연안바다복장, 해중립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6년부터 매년 감소하던 어획량이 2008년 이후부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원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어업인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수산업 발전의 계기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어린고기 채포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업자들이 어린고기를 젓갈용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당부 하오니 어린고기가 통발 등 어구에 잡히더라도 정해진 규격에 미달하는 고기는 다시 방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수산업의 근간인 수산자원증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 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여러분과 후세들의 소득원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수산자원보호는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 어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의 지도·단속에 앞서 어업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미래 우리수산업이 경쟁력 있고 활기찬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어린고기 보호에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사 천 시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천시지회

### 회원모집 안내

- 목 적 : 사천시 공군예비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
- 가입자격 : 공군전역 장교, 부사관, 병·보충역, 제2국민역, 퇴직군무원
- 가입절차 : 서면 또는 전화통화로 회원가입 가능
- 주요활동
  - 사천시 공군예비역을 대표하는 기능 수행
  -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기여활동 전개
  - 골프, 산악, 낚시 동호회 활동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 도모
- 회원혜택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회원증 발급
  - 골프동호회 가입회원은 골프 준 회원증 발급하여 월 3-6회 골프배정
  - 공군주관 행사 초청 및 참석
  - 복지시설 이용 (대한민국공군전우회 홈페이지에서 복지정보 제공)
- 접 수 처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386 한보2차 아파트 상가
- 문 의
  - 회장 정보용(☎ 010-3311-8249, 852-8249), 사무국장 박갑용(☎ 016-9676-1907, 852-1907), 팩스(855-0302)



## 2013년 반려동물(개) 등록제 실시

1.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 3조
2. 목 적 :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
3. 시 행 일 : 7월 1일부터 연중
4. 등록대상 : 반려목적인 3개월령 이상인 개
5.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외장형무선식별장치·인식표 중 택일
6. 등록수수료

등록방법	등록수수료	비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0,000원	동물보호조례에 의거 수수료 감면 가능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	
인식표	10,000원	

- ※ 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수수료 감면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할 것)
  - 전액감면 : 장애인 보조견
  - 50%감면 :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 내장형칩이 장착된 동물 등
  - 30%감면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경우
  - 20%감면 :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3마리부터 적용)
7.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지정된 동물대행업체 방문 신청(등록수수료 현금 납부)
  8. 등록대행업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동원동물병원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852-0797	
동물병원위드팻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855-1275	
노산동물병원	사천시 동금동	835-3898	

9. 기타문의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 831-3781, 3782, 3784)

## 2013년 상반기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부 현황 및 지역 농수산물 구입 현황 공개

사천시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부 현황 및 지역 농·수산물 구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역사회 기부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기부기간	기부물품	기부금액	기부처	기부내용	비고
총계			10,025			
(주)이마트 사천점	2013. 1월~2013. 6월	책상, 의자 외 5종	8,340	어린이재단 외 7개소	후원 및 봉사활동	
홈플러스(주) 삼천포점	"	책, 의류 외 5종	515	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외 1개소	물품기부 및 자원봉사	
탑마트 삼천포점	"	음료 외 2종	1,170	초록21회 외 2개소	지역단체 협찬	

### □ 지역 농·수산물 구입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구입기간	구입품목	구입금액	비고
총계			1,130,260	
(주)이마트 사천점	-	-	-	
홈플러스(주) 삼천포점	소계		4,566	
	2013. 1월~2013. 6월	어묵	4,566	(주)남부식품,
탑마트 사천점·삼천포점	소계		1,125,694	
	2013. 1월~2013. 6월	친환경딸기, 대추방울토마토	973,528	농협사천시지부
		간고등어	52,560	(주)정해물산
	볶음소멸, 세멸, 건홍합	99,606	하동물산	

※ 지역 농·수산물은 본점에서 생산자(판매자)와 직거래 구입 후 전국 지점으로 공급



## 우주항공소년 포록이의 항공 이야기(115)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Surion) ②

수리온(Surion) 헬기는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 Korean Helicopter Program)에 의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KUH : Korean Utility Helicopter)를 말한다. 육군은 한국군의 주력 헬기인 UH-1H와 500MD, AH-1S 공격헬기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정찰헬기와 기동헬기, 공격헬기를 함께 개발하는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KMH)"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은 개발비 및 양산비용이 13조원 이상 필요한 대형사업이어서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 2004년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 기동형 헬기만을 먼저 개발하고 공격형은 추후 개발 상황을 지켜보며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이 분할되었다. 기동형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의 명칭 또한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수리온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체계개발을,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군 전용 핵심 구성품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을 주관했으며, 98개 국내 협력업체와 49개 해외협력업체 그리고 28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수리온 개발사업에는 약 1조 3,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며, 개발비용과 양산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조원 수준이다.

수리온은 원래 병력수송 등 기동형으로 개발되었지만 다양한 군용 및 민수용 파생형 개발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즉 수리온은 민수헬기와 상륙기동헬기, 의무수송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헬기 개조개발이 가능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내 정부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관용헬기는 100여대로 향후 20년간 수리온급 헬기 수요 규모만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리온 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 부품과 기술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형공격헬기(LAH), 소형민수헬기(LCH) 개발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수리온(KUH)은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해 국제인증 기준에 맞춰기 때문에 충분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1년 유로콥터사와 합작법인(KAI-EC)을 설립하고, 향후 25년간 약 300대 이상의 수리온 해외수출을 목표로 국제 공동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김형래

##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 동정



### 산포래 산악회 강원도 곰배령 43 홍보산행

매년 봄·가을마다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리본을 달고 홍보산행을 하는 부산 산포래 산악회(산대장 최규수)가 지난달 13일 부산지하철 온천장에

서 집결해 강원도 영월군 잣봉~인제군 곰배령~강릉시 경포대를 거치는 2박3일 산행을 갖고 회원들 간 우의를 다졌다.

### 재부 삼천포고총동문회 제2회 족구대회 대성황

재부산 삼천포고 총동문회(회장 김영오)에서는 지난달 16일 금정산 산성마을 의령촌집 족구장에서 단합을 위한 기수별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족구대회에 앞서 동문들은 금정산성 동문-산성마을에 이르는 코

스를 산행한 후, 식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동문회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어진 족구대회에서 23기 25기 27기 33기 35기 등 5개기수가 열린 경기를 펼친 결과, 33기가 우승했으며 25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 여성 갱년기, 한방(韓方)으로 해결 하세요

사천시 보건소, 8월23일까지 주1회 '한방 갱년기 테라피' 실시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오는 8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다목적홀에서 '한방 갱년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보건소 한방 공중보건사의 상담진료를 받아 침·뜸 요법과 한방 침약 등 갱년기 증상완화를 위한 체질별 시술을 받게 된다.

또 기공체조와 팔방근육강화 운동을 통한 운동요법과 전문 강사의 웃음치료 및 우울증·스트레스 관리교육도 병행된다.

한편 여성의 생리가 없어지는 45~55세를 전후로 여성의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갱년기라 하며, 이때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안면홍조, 두통, 요통, 현기증, 가슴 울렁거림, 식욕부진 등의 갱년기증후군이 나타난다.

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방 갱년기 테라피를 통해 가족건강의 중심점인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과 함께 행복까지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안내 (7월 1일부터 적용)

○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 ☞ 대상: 만 20세 이상(1993.7.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잇몸질개 등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보험적용(연간 1회)
- ☞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연1회 초과시 비급여)
- ☞ 비용: 의원급에서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3,000원

출생자) 어르신, 남은 치아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 가능한 분

- ☞ 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 비용: 의원급서 잇몸 당 609,000원
- ☞ 사후관리: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클라스프 수리 등 사후 유지 관리 무료 제공(진찰료 별도)되며, 그 이후 보험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발생

○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 대상: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129)

### 건강 단신

##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연중 실시

사천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만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 사업을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해당 월령별 시기에 필요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의 성장·발달 과정과 건강전반에 대한 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으로 월령별 7차로 실시된다.

진단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영유아에 한해서는 정밀 진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대상자 여부와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의 가정으로 발송하는 검진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 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완화의료·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를 오는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9월 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사천시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말기 환자의 총체적 고통과 이해 ▲말기 환자와의 대화기법 ▲사별가족 돌봄 등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 있거나 완화의료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831-3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산 육아용품 무료로 지원해드려요

사천시 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출산육아용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출산육아용품 무료지원 사업은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및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용품(배냇저고리, 내의 등)과 목욕 타월을 지원해 산모들의 임신과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원과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사천시 보건소(☎831-3506)로 하면 된다.

## 의학칼럼 아침에 일어나 첫발 디딜 때 발바닥이 아프면?

평소 높은 굽 구두를 즐겨 신는 직장인 K씨. 구두를 신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까지고 육신거리며 발바닥이 아팠다. 하지만 완벽한 패션 스타일의 완성을 위해 하이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잠에서 깬 K씨는 화장실을 가려고 첫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발을 움직이려 해도 심한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녀는 우선 발바닥을 마사지해 통증을 진정시키고 병원을 찾았다.

발은 사람의 이동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 동안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왔다. 다행히도 최근 점점 발과 발 질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질환의 원인은 대부분 발 그 자체에 있다. 발의 구조물은 거의 다 손으로 쉽게 만질 수 있어, 간단한 병력 조사나 진찰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늘 발과 함께하는 신발과 깔창에

대한 간단한 지식은 발 질환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최근 잘못된 신발과 발 보조기 때문에 발 질환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발질환의 치료에 중요하다.

그중 흔한 발의 질환을 한 가지 소개하면, 발바닥 근막염이 있다. 발바닥 근막은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뿌리 부위에 붙은 튼튼하고 두꺼운 섬유띠를 말한다. 발의 안쪽 세로 아치를 유지하고, 체중부하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며, 걸을 때 발의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바닥 근막염의 원인은 다양하다. 발뒤꿈치 쪽에 있는 발바닥 근막의 급만성 염좌를 비롯해 종골(발뒤꿈치 부위에 있는 뼈)의 퇴행성 변화,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 비만으로 인한 과도한 부하, 평발이나 과도한 운동, 아킬레스 건의 단축 등이 원인이다.

가장 특징적인 발바닥 근막염의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조금 걷거나 운동을 하고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오후가 되면 통증이 다시 발생한다.

발바닥 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에는 휴식과 냉찜질이 도움이 된다. 발바닥에 붙이는 테이핑 요법도 유용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발바닥 근막을 늘일 수 있는 발바닥 근막 신전 운동이다. 손을 이용하여 발바닥 근막을 늘여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다. 또는 벽을 맞대어 서서 벽을 짚고 다리를 쭉 펴서 발바닥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운동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를 찾아 운동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치료로 보조적으로 발바닥 근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단하지 보조기를 잠잘 때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신장 운동을 함께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신상엽 (삼천포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